

2023년 봄학기 전시간 훈련
메시지 4를 위한 소개의 교통 —
“화해 장소— 속죄 덮개의 실재이신
그리스도의 내재적인 의미와 계시 “

하나님은 그룹들(cherubim)과 불과 칼이라는 세 수단(창 3:24)을 사용하시어 생명 나무에 이르는 길을 막으셨다. 그룹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상징하고(비교겔 9:3, 겔 10:4, 히 9:5), 불은 하나님의 거룩함을 상징하며(신 4:24, 신 9:3, 히 12:29), 죽이는데 사용되는 칼은 하나님의 의를 상징한다(비교 애 3:42-43, 롬 2:5). 하나님의 이러한 속성들은 죄 있는 사람에게 내놓은 요구 사항들이다. 죄있는 사람은 이러한 요구 사항들을 충족시킬 수 없기 때문에(롬 3:10-18, 롬 3:23),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포함하여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함과 의의 요구를 충족시켜 드림으로써 우리가 지성소에 들어가 생명나무에 동참하도록 새롭고 살아 있는 길을 열어 놓으실 때까지는, 사람이 생명나무이신 하나님을 접촉하는 것이 허락되지 않았다(히 10:19-20, 계 22:14).

그리스도께서 오시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써 하나님의 의와 거룩함과 영광의 요구를 만족시키셨고, 부활하시어 지금은 우리의 의와 거룩함과 영광이 되신다(고전 1:30). 그러므로 생명나무에 이르는 길을 막았던 하나님의 속성들이 이제 생명나무이신 그리스도를 누림을 통해 우리의 것이 되었다.

로마서는 다음의 주요 항목들을 보여줌

로마서의 기본 사상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법리적인 구속과 유기적인 구원을 통하여 죄인들을 하나님의 아들들로 만드시어 지방 교회들 안에서 실재화된 그리스도의 온 몸의 섞임의 생활을 통해 그리스도의 몸을 건축하는 것이다.

- (1) 그리스도의 구속하는 죽음을 통해 우리를 하나님의 의(그리스도)로 여기게 되었다(롬 3:25).
- (2)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사심을 통해 하나님의 거룩함이 우리 안으로 일해 넣어진다. 매일 신성한 본성이 우리 안으로 주입되어 우리를 기질적으로 거룩하게 만든다 (6:19, 22-23).
- (3) 우리는 결국 하나님의 영광으로 영광스럽게 될 것이다(8:30). 주 예수님을 믿은 모든 사람은 결국 하나님의 영광스럽게 된 아들이 되어 외적으로는 하나님의 의를 지니고 내적으로는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적셔지며 그분의 아들들 중에 하나로서 그분의 총만한 영광의 영역 안에서 빛날 것이다. 우리가 영광스럽게 되는 날은 하나님의 아들들의 나타남이 될 것이다(19 절). 그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의 영광의 자유 안으로 들어갈 것이다(21 절). 이것이 하나님의 완전한 구원이 될 것이다.
- (4) 이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35, 39 절, 비교 28 절), 곧 하나님 자신 안으로 온전히 이끌릴 것이다. 영원 과거부터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고(렘 31:3), 그분은 오늘도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신다(롬 5:5). 그분의 마음, 그분의 사랑은 우리의 보장과 우리의 안전장치이다.
- (5)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거룩함,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해 그분을 찬양한다! 이것이 로마서의 처음 여덟 장의 구조이다.

**로마서 3장 25 절은
화해 장소의 실재이신 그리스도를 계시함**

이 구절은 그리스도에 관해 “그리스도 예수님의 피로, 사람의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님을 드러내시어 화해 장소로 삼으셨습니다”라고 말한다.

** ‘화해’는 한 편이 다른 편에게 잘못하여 상대에게 빛을 졌을 때 반드시 당사자의 요구들을 만족시키기 위한 행동을 하여 두 편 사이의 상황을 진정시키는 것을 가리킨다. ‘화해’는 우리를 위해 하나님을 진정시키고 하나님의 의로운 요구들을 만족시킴으로써 하나님과 화해시키는 것을 뜻한다. **

(1) 하나님은 하늘들과 땅을 창조하시고 복원하시기 위해 육일을 사용하셨지만 화해 덮개이신 그리스도를 세우시기 위한 준비를 위해 영원 과거부터 시작하셨다. 미가서 5 장 2 절은 그러나 너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 비록 네가 유다의 수천 가운데 작을지라도 / 이스라엘을 다스릴 이가 / 너에게서 내게로 나오리라. / 그의 나아옴은 아득한 옛날로부터, / 영원의 날들로부터라." 라고 말한다.

(2)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동안 그리스도께서 죄를 위한 유일한 희생 제물, 곧 속죄 제물의 실재로서 그분 자신을 바치실 때, 어둠이 온 땅에 임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화해 장소이신 그리스도를 세우셨다(눅 23:44, 히 9:26). 그리고 셋째 날에 하나님께서 그분을 부활시키셨다. 이 부활은 또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세우시는 과정의 일부였다. 주님의 부활 후에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하늘들 안으로 받아들이시고 그리스도를 그분의 오른편에 앉게 하셨다. 이렇게 받아들이고 앉히신 것도 세우심의 일부이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힘, 부활, 승천의 전 과정을 통해 그리스도를 세우셔서 그분의 오른 편에 앉게 하셨다. 이러한 세우심은 그리스도 자신을 화해 자체가 되게 했다. 이제 화해이신 그리스도에 의해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적용될 수 있다.

(3) 장막의 중심과 내용인 증거궤는 하나님의 장막, 곧 하나님의 집인 교회의 중심과 내용이신 하나님-사람 그리스도를 상징한다. 성막의 가구들 중 첫번째 항목인 궤는 으뜸의 위치를 차지한다.

(4) 증거궤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출애굽기 25 장 17 절에서 죄를 덮는 궤의 덮개로 예표된 화해 장소였다. 이 화해 장소는 장막 안에 있는 궤 위의 속죄 덮개로 예표되었다. 순금으로 된 이 속죄 덮개는 그리스도의 최상의 부분을 상징한다.

(5) 하나님을 접촉하는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의와 거룩함과 영광의 삼중의 요구에 의해 지배받았다. 대제사장이 하나님을 접촉하기 위해 올 때마다 그는 (궤 속의 율법의 돌판에 체현된) 하나님의 의의 요구, (궤가 위치한 장소 - 지성소 - 가 의미하는) 하나님의 거룩함의 요구, (궤를 덮고 있는 그룹으로 상징된) 하나님의 영광의 요구를 충족시켰다.

2023년 봄 학기
전시간 훈련 메시지 개요

전체 주제:
바울의 서신들 안에 있는 진리의 중점들
메시지 4

화해 장소 — 속죄 덮개의 실재 — 이신
그리스도의 내재적인 의미와 계시

성경: 롬 3:25, 출 25:16-22, 37:6-9, 레 16:14-15, 29-30, 히 4:16, 9:5

- I. 속죄 덮개(출 25:16-22, 37:6-9), 화해 장소는 언약궤 위에 있는 죄를 덮는 덮개였다. 로마서 3장 25 절은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화해 장소라고 말한다.
- A. 구약에서 언약궤의 덮개인 속죄 덮개는 하나의 예표인데, 그것은 지성소 안에 감추어져 있었다. 그러나 신약에서 속죄 덮개의 실재, 곧 화해 장소이신 그리스도는 모든 사람 앞에 공개적으로 드러나셨다 — 롬 3:25.
 - B. 언약궤는 하나님께서 백성과 만나시는 장소였다. 그 언약궤 속에는 십계명의 율법이 있었는데, 그 율법의 요구는 거룩하고 의로웠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러 온 사람들의 죄들을 드러내어 유죄 판결했다. 그러나 속죄일에 언약궤의 덮개 위에 속죄하는 피가 뿌려짐으로써 죄인 편이 모든 상황은 완전히 덮어졌다 — 레 16:14-16.
 - C. 그러므로 하나님은 죄를 덮는 이 덮개 위에서 그분의 의로운 율법을 범한 사람들을 만나실 수 있으셨다. 또 통치상 하나님의 의와 조금도 모순되지 않게, 심지어 하나님의 영광을 가지고 언약궤의 덮개를 가리고 있는 그룹이 지켜보는 데서도 이렇게 하실 수 있으셨다 — 출 25:22.
 - D. 이와 같이 사람과 하나님 사이의 문제는 진정되었으며, 하나님은 사람을 용서하시고 긍휼을 베푸셔서 사람에게 은혜를 주실 수 있게 되었다.
 - E. 이것은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 문제가 되었던 죄를 없애신 하나님의 어린양 그리스도의 예표인데,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거룩함과 의와 영광의 요구를 모두 만족시키시고 사람과 하나님 사이의 관계를 진정시키셨다.
 - F. 그러므로 하나님은 사람들이 이전에 지은 죄들을 지나쳐 가실 수 있으셨다. 그분은 자신의 의를 나타내시기 위하여 이렇게 하시지 않으면 안 되었다. 이것이 로마서 3장 25 절에서 말하는 것이다.
 - G. 언약궤의 덮개에 대한 히브리어 단어는 ‘덮다’를 의미하는 단어의 어근에서 온 ‘카포렛’이다. 칠십인역 성경에서 이 단어는 ‘힐라스테리온’으로 번역되는데, 그것은 ‘화해 장소’를 뜻한다(이것은 용서하고 긍휼을 베푸는 것을 함축하고 있다. 히브리서 8 장 12 절에서 ‘용서하고(화해하고)’로 번역된 단어는 ‘힐라스테리온’의 어근이며, 누가복음 18 장 13 절에서 ‘화해하여’로 번역한 단어도 이 어근에서 유래된 것이다).
 - H. 흠정역에서는 이 단어를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긍휼을 베푸시는 장소를 언급하는 ‘시은좌(施恩座)’로 번역했다. 히브리서 9 장 5 절에서 바울도 역시 언약궤의 덮개에 대해 ‘힐라스테리온’을 사용했다. 로마서 3장 25 절에서도 동일한 단어인 ‘힐라스테리온’이 사용되고 있는데, 이것은 언약궤의 덮개가 하나님께서 드러내신 화해 장소이신 그리스도를 상징한다는 것을 보여 준다.
 - I. ‘힐라스테리온’ 외에 ‘힐라스테리온’과 똑같은 헬라어에서 유래된 다른 단어가 신약에서 사용되었는데, 이 단어들도 그리스도께서 사람과 하나님 사이의 관계를 진정시키시기 위해 사람의 죄를 어떻게 지고 가셨는지 보여 준다.
 - 1. 하나는 ‘힐라스코마이’(히 2:17)인데, 이것은 ‘화해시키다, 진정시키다’를 의미하며 다른 사람의 요구를 만족시킴으로써 화목하게 하는 것이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대한 하나님의 요구를 만족시킴으로써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다.
 - 2. 또 다른 하나는 ‘힐라스모스’(요일 2:2, 요일 4:10)인데, 이것은 ‘화해시키는 것’, 즉 화해 제물을 의미한다.

J. 그리스도는 우리의 죄들에 대하여 화해를 이루셨다(히 2:17). 따라서 그분은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화해시키기 위한 것, 즉 화해 제물이 되셨고(요일 2:2, 요일 4:10), 또한 언약궤의 덮개로 예표된(히 9:5) 화해 장소가 되셨는데, 그곳에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화해를 누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다.

K. 그러므로 그리스도는 화해시키는 분이시고, 화해 제물이시고, 화해 덮개, 곧 하나님과 하나님의 구속받은 백성이 함께 만나는 장소이시다 — 출 25:21-22.

II. 속죄 덮개, 곧 화해 장소는 하나님의 의로운 율법의 덮개이시자 하나님께서 은혜로 그분이 구속하신 백성에게 말씀하시는 장소이신 그리스도를 상징한다. 따라서 화해 장소는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와 동일하다. 은혜의 보좌, 곧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장소는 사실상 그룹들 사이 보좌에 앉아 계시고 우리의 영 안에 거하시며 목양하시는 그리스도 자신이시다 — 히 4:16, 시 80:1, 출 25:22.

A. 순금으로 만들어진 덮개는 그리스도의 순전하게 신성한 본성을 상징한다.

B. 속죄 덮개의 크기는 증거를 상징한다 — 출 25:17.

III. “또 금으로 그룹 둘을 만들되, 쳐서 만들어 속죄 덮개 양쪽 끝에 두어야 한다.” — 출 25:18.

A. 그룹은 하나님의 영광을 상징한다(겔 10:18, 히 9:5). 그러므로 속죄 덮개 위의 그룹은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표현하신다는 것을 보여 준다(비교 요 1:14).

B. 이 두 그룹은 쳐서 만들어졌는데,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통하여 신성한 영광을 표현하신 것을 나타낸다 — 비교 히 2:9-10, 롬 8:17-18.

IV. “그룹 하나는 이쪽 끝에 두고 다른 그룹 하나는 저쪽 끝에 두되, 속죄 덮개와 그 양쪽 끝에 있는 그룹이 하나로 이어지게 해야 한다.” — 출 25:19.

A. 두 그룹이 속죄 덮개와 하나로 이어졌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속죄 덮개이신 그리스도에게서 비추어 나오고 그리스도 위에 머물러 증거가 되었다는 것을 보여 준다 — 비교 요 1:14, 고후 4:4, 6.

B. 그룹의 형태, 크기, 무게는 언급되지 않았는데,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비추신 영광은 측량할 수 없으며 비밀하다는 것을 보여 준다 — 비교 요 3:34.

V. “그룹들은 날개를 덮개 위로 펴서 그 날개로 속죄 덮개를 덮고 서로 얼굴을 마주 보게 하되, 그룹들의 얼굴은 속죄 덮개 쪽을 향하게 해야 한다.” — 출 25:20.

A. 그룹들의 날개가 속죄 덮개를 덮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그리스도 안에서 표현되어 완전한 증거가 되었다는 것을 보여 준다 — 히 1:3 상, 엠 3:21 과 각주 3.

B. 그룹들의 얼굴은 서로 마주 보며 속죄 덮개 쪽을 향하고 있었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일들을 지켜보며 관찰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VI. “너는 그 속죄 덮개를 궤 위에 얹고, 궤 안에는 내가 너에게 줄 증거판을 넣어 두어야 한다.” — 출 25:21.

A. 그룹과 속죄 덮개가 순금으로 만들어졌다는 것(출 25:17-18)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이신(히 1:3 상) 그리스도의 빛남이 신성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B. 금으로 만들어진 속죄 덮개를 시뭘 나무로 만들어진 궤(출 25:10) 위에 얹은 것은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신성한 본성의 영광을 나타내시는 근거가 그리스도의 신성이 아니라 그분의 인성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시뭘 나무는 견고한 성격과 높은 표준을 지니신 그리스도의 인간 본성을 상징한다.

VII. “내가 거기에서 너와 만나고, 속죄 덮개 위에서,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할 모든 것에 관하여 너와 이야기 하겠다.” — 출 25:22, 비교 시 80:1.

A. 하나님께서 속죄 덮개 위에 있는 그룹들 사이에서 그분의 백성과 만나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화해시키시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고 그분의 증거이신 화해시키시는 그리스도 안에서 표현된 영광 가운데 우리와 만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것을 의미한다 — 비교 고후 3:8-11, 18.

1. 하나님은 영광 안에서 우리와 만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며 이 영광은 그리스도의 측량할 수 없고 설명할 수 없는 빛남이다.

2. 화해 장소, 곧 그룹이 있는 속죄 덮개는 다른 것이 아닌 오직 우리의 사랑하는 주 예수님 자신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만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마다 이 보배로운 그리스도가 계신다. 사실상 하나님은 이 빛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와 만나시고 우리와 말씀하신다.
 3. 화해가 단지 행동이 아니라 장소이신 그리스도 자신임을 보는 것이 중요하다. 로마서 3 장 25 절에 따르면 하나님께서는 인격이신 그리스도 자신을 화해 장소로 삼으셨다. 이 인격 위에서 하나님은 우리와 만나실 수 있고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4. 화해 덮개, 곧 속죄 덮개(레 16:14-15) 위에 뿌려진 속죄의 피는 덮개 아래 있는 하나님의 의로운 율법과 덮개 위에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본성과 빛나는 영광의 요구가 만족되어 사람의 양심에 평안을 주는 것을 상징한다.
- B. 그러므로 속죄일에 희생 제물의 피가 뿌려진 속죄 덮개(레 16:14-15, 레 16:29-30)는 타락한 죄인들이 의로우시고 거룩하시며 영광스러우신 하나님을 만나 그분의 말씀을 들음으로 은혜이신 하나님을 주입받고 그분에게서 그들의 매일의 생활을 통제(잠 29:18)하는 이상과 계시와 지시를 받을 수 있는 장소이신, 인성 안에서 구속하시는 그리스도(그분의 법리적인 구속)와 신성 안에서 빛나시는 그리스도(그분의 유기적인 구원)를 묘사한다.
1.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의 영광 안에서 우리에게 오실 때 그분의 의로운 율법의 요구들을 보지 않으시고 우리의 죄들을 보지 않으신다. 그보다 그분은 속죄 덮개 위에 있는 구속하는 피를 보신다.
 2. 그리스도의 인성은 구속을 위한 것이고 그분의 신성은 빛남을 위한 것이다. 속죄 덮개 위에 있는 그룹은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신성으로 빛나시는 것을 상징하고, 덮개 위에 뿌려진 피는 구속을 위한 그분의 인성을 상징한다. 이제 우리와 하나님은 구속하시고 빛나시는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만나 대화할 수 있다.
 3. 속죄 덮개 위에서와 그분의 영광의 빛남 가운데서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그분의 마음의 갈망을 알 수 있다.
 4. 더 나아가 우리가 주님의 보배로운 피와 빛나는 영광을 깨달으며 주님과 시간을 더 보낼수록 그분은 그분 자신을 우리 안으로 더 주입하신다. 그리스도를 사는 것은 그분을 주입받은 자연스러운 결과이다 — 비교 고후 3:18, 빌 1:19-21 상.
- C. 지성소 안에서 하나님의 주입을 받고 그러한 주입에 따라 행하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가장 놀라운 의미에 있어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다. 이것이 이 시대를 종결하고 왕국 시대를 이끌어오고 궁극적으로는 새 예루살렘으로 귀결될 주님의 최종적인 회복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다.